

개발재원 고위급대화

지난 2005. 6. 27(월)~28(화)간 미국 뉴욕에서 개발재원 고위급대화가 개최된 바 외국인 직접투자, 개발을 위한 금융 및 기술협력분야 협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.

I. 개발원조

- 개도국 대표들은 EU, 일본의 원조 공여 계획을 환영하고, 약속이 예정대로 집행되기를 기대함.
- EU측 참석자들은 2015년 0.7% 공약이 실제 집행될 것임을 강조하였고 집행위 대표는 현재 EU 대외 원조의 절반이 아프리카국가에게 공여되고 있으나 향후 추가 증액되는 원조도 절반 이상이 아프리카들에게 공여될 예정이며, 프로젝트 지원형식을 지양하고 교육, 위생 등 재정지원(budgetary support) 형태로 지원될 예정임을 밝힘.
-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정책대화 강화를 통

해 투명성을 높여 나가게 될 것임을 강조함.

- OECD(DAC) 대표는 국제원조가 증액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, 기존 공여국 외에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, EU 신규가입국, 카타르, 오만 등 중동국가가 신흥공여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기대감을 표명함.
- 그러나 이라크 지원 및 부채 탕감, 나이지리아 부채 탕감, 쓰나미 지원 여파로 아프리카를 제외한 다른 지역국가에 대한 원조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함.
- 참가자들은 원조액 규모뿐 아니라 원조의 질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보았으며, 금년 3월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 90개국이 서명한 '원조 효율화에 관한 파리 선언'을 9월 정상회의 성과의 하나로서 모든 유엔회원국이 서명하자는 의견이 제시됨.
- 일본 대표는 고이즈미 수상의 6.27(월) ODA 증액 발표내용을 소개하였고, 미국 대표는 부시 대통령

이 2002.3월 몬테레이 회의 계기에 향후 4년간 ODA 50%를 증액하겠다는 공약을 초과 달성하였음을 강조하고, 원조액 증액 시간표 제시보다는 전 통적인 방식으로 원조를 계속하겠다고 발표함.

□ 현재와 같은 ODA 급증 추세에 맞추어 개도국들도 원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현 추세를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함.

□ FAO 대표는 ODA를 통해 최빈개도국의 농업 분야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함.

II. FDI 등 민간 개발 자원 활용

□ FDI 등 민간투자가 개발의 원동력이라는 데 의견이 많이 표명되었으나, 중남미 등 일부 중소득국들은 아시아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다른 지역의 민간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.

□ 선진국들은 개별 개도국들이 자신의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전개하여야 하며, 정치적 불안, 부패 만연, 제도가 미비된 곳에는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투자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.

□ 헝가리 대표는 체제 전환국으로서 EU의 도움을 받아 제도를 정비하였고, 특히 도로, 교통, 통신 등 인프라와 교육에 많이 투자한 결과 480억불의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지속 가능 성장 조건을 만들었다는 사례를 발표함.

□ 또한 민간재원은 속성상 volatility가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자본이동에 관한 prudential regulation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됨.

III. 민간 송금의 개발 자원 활용

□ 현재 이민자의 본국 송금액 총액은 연간 1,270억 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, 선진국간 송금액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규모는 연 340억불 정도로 추산된다는 OECD(DAC) 발표가 있었으며, 미국 대표는 미국에서 개도국으로 송금되는 공식 금액은 약 280억불이라고 밝힘.

□ 참석자들은 이민자 송금액의 일부가 개도국의 개발재원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미국 등 선진국들에 대해 송금 절차를 간소화하고 송금 비용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도록 요청함.

IV. 최빈개도국의 필요 충족 문제

□ 아프리카국가들의 특별한 수요 충족 필요성과 함께 최빈개도국(LDCs), 군소개도국(SIDS) 및 내륙 최빈개도국(LLDCs)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음.

□ 또한 국가붕괴 위기에 있는 국가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강화하자는 의견도 많이 제기됨.

V. 새로운 개발재원

□ 프랑스, 독일, 브라질 대표(룰라 그룹)는 새로운 개발재원 마련을 위한 최근 논의 동향을 소개하고 회원국들의 참여를 촉구함.

- 기존 제안 중 항공료에 국제연대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, 다른 제안(IFF 시범사업시행, 송금편의제공)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금번 회의에서는 공식 제안치 않았음.

□ 대부분의 발언자들은 룰라 그룹의 새로운 재원 마련 계획을 환영하였으며 미국은 동 계획은 환영하나 자국도 별도의 새로운 개발 재원 마련 계획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동 계획에 참여치는 않을 예정이라 함.

□ 개도국 참석자들은 상기 새로운 개발재원은 기존의 ODA를 대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, 룰라 그룹은 동 새로운 개발재원은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기존 ODA에 추가하여 발굴하려는 것임을 강조함.

[자료: 주유엔 대표부]